

## 한·UAE 에너지장관 회담

- 김영호(金泳鎬) 산업자원부 장관은 6월 7일(수)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UAE(아랍에미레이트)의 알 나세리(Al-Nasseri) 석유광물자원부 장관을 만나 양국 에너지장관 회담을 개최하고, 양국간 에너지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였음
- 동 회담에서 김 장관은 최근의 고유가 상황은 외환 위기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다지고 있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, 지나친 고유가는 석유 소비를 위축시켜 산유국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하고, 국제유가가 적정 수준으로 하향안정될 수 있도록 UAE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망하였음
- 이에 양 장관은 현재 불안정기조에 있는 국제 석유 시장의 안정화가 석유소비국은 물론 산유국에게도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, 국제유가가 소비국과 산유국 모두에게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음
- 한편, 김영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, 한·UAE 양국간에 석유공동저장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, UAE에서 시행되는 에너지플랜트 건설사업에 아국기업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, 플랜트 기자재 수출기회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

- 이날 에너지장관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문 내용은 다음과 같음
  - ① 양 장관은 국제석유시장의 안정이 석유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, 국제유가의 불안상황(volatility)을 방지하고 소비국 및 생산국 모두에게 수용가능한 적정 유가수준을 정착키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
  - ② 양 장관은 나아가 원유와 LPG 등 석유의 장기 안정적·경제적 교역이 양국의 공동번영과 석유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
  - ③ 양 장관은 양국의 상호이익에 부합하는 에너지 분야 공동사업에 대해 향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
  - ④ 양 장관은 에너지분야는 물론, 비에너지분야에 있어서의 양국간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음
  - ⑤ 양 장관은 양국간 에너지협력위원회(Joint Cooperation Committee)를 내년중 적절한 시점에 UAE에서 개최기로 하였음